

Date: 27 Nisan 5786 (April 14, 2026)

Torah Portion: Metzora

Topic: 비방하는 말

토라는 “메초라” (짜라아트 병변 환자~*오늘날 나병환자와 비슷함)의 법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현인들은 이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특성 중 하나인 “거짓된 혀”와 연결 지으며, “차라아트” 병변은 타락한 말의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나병에 걸린 미르얌의 사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녀의 실수는 단지 그녀가 한 말뿐만 아니라, 모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세가 자의로 행동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던것입니다.

여기서 현인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논의합니다.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한 부정적인 말도 '라손 하라 (비방하는 말)로 간주되는가? 마할랄(Maharal)은 그러한 말은 공개적이고 직접적이어서 뒤에서 하는 은밀한 행동과 닮지 않았기 때문에 “라손 하라”가 아니라고 판결합니다. 그러나 하페츠 하임 (Chafetz Chaim)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당사자 앞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라손 하라”로서 금지된다고 판결합니다.

라브 이츠하크 후트너 (Rav Yitzchak Hutner)는 “라손 하라”에 두 가지 뚜렷한 요소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 두 이건을 조율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정보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은 토라의 금지 명령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gossip) 말며”(레위기 19:16). 여기서 비방 또는 고자질을 뜻하는 단어 ‘라킬’(ליל)은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스파이 활동이나 정탐을 뜻하는 ‘라겔’(לגל)과 어원이 같습니다. 따라서 “라손 하라”는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결점을 찾아내고 공공적으로 폭로하는 “정탐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라브 후트너는 중요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부정적인 정보를 찾아서 전달하지 않고서는 “라손 하라”를 범할 수 없지만, 그 정보를 반드시 능동적으로 찾아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정당하게 정보를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 부정적인 정보를 공유한다면, 그는 여전히 “라손 하라”를 범한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두 상황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정보를 정당하게 얻었다면, “정탐”의 요소는 그것을 말하는 행위 자체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면 그것은 정탐과 닮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할랄이 언급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보를 부적절하게 얻었다면, 즉 타인의 결점을 뒤졌거나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로 선택했다면, 정탐 행위는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그 정보를 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더라도 “라손 하라”의 금지가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것이 미리얌의 사례를 설명해 줍니다. 그녀의 말이 모세 앞에서 행해졌을지라도, 그녀의 죄는 그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좋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호와의 토라는 (가르침은) 명령합니다- “공정의로 네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레. 19:15).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그녀는 부정적인 의미를 “찾아낸”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라손 하라”의 영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금지 명령의 초점을 이동시킵니다. “라손 하라”는 단지 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령에서, 한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인 들은 언어를 지키는 것과 더불어 내면의 정결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진실함으로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또한 “내 혀를 악에서 지키시고 내 입술을 거짓된 말에서 지키소서.” 이 기도들은 라브 후트너가 묘사한 구조와 일맥상통합니다. 마음은 정결해져야 하며, 혀는 절제되어야 합니다.

“라손 하라”의 정의를 제한적으로 보았던 마할랄 조차 타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말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토라 말씀의 또 다른 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페츠 하임은 람밤 (Rambam) 및 다른 토라 학자들과 더불어, “라손 하라”가 당사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적용된다고 판결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삶에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경멸적인 언행을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메초라의 법은 더 넓은 영적 교훈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또한 지켜야 합니다. 타인을 호의적으로 판단하고 해로운 말을 삼가는 훈련을 할 때, 사람은 정결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이의 성정의 결점을 들추는 자가 아니라, 존엄성을 보존하고 토라 계명의 바른 행위들을 지키므로써 엘로힘과 마쉬아흐의 평화의 영을 지속해서 심장에서 지키는 자가 됩니다.

shalom.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요. 14:26-28)

“이새의 즐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정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사 11:1-9)